



#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 현지조사지침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 전화: 02-760-1270 / 팩스: 02-744-6169  
src@dragon.skku.ac.kr <http://www.src.re.kr> <http://www.kgss.re.kr>



# 목 차

## I.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소개

1. 조사 개요 .....	3
2. 조사내용 .....	4
1) 반복핵심 조사 .....	4
2) ISSP 주제모듈 조사 .....	5
3) EASS 주제 모듈 조사 .....	6
4) 특별 주제모듈 조사 .....	7
3. 표집방법 .....	8
1) 표집방법 요약 .....	8
2) 표집의 구체적 절차 .....	8
4. 현지조사 .....	12
5. 자료 이용 .....	13
1) KGSS 자료 서비스 .....	13
2) 학문적 활용 .....	14
3) 사회적 활용 .....	16
4) 교육과의 연계 활용 .....	17

## II. 조사원 면접 지침

1. KGSS-2008 현지조사 .....	21
1) 조사원의 역할 .....	21
2) 면접 지침 .....	28
2. KGSS-2008 설문 구성 .....	52
1) 설문 내용 요약 .....	52
2) 설문 문항 설명 및 문항별 주의 사항 .....	53

## 부 록

1. 현지조사 조직 및 연락망 .....	65
2. SRC 조직 및 연락망 .....	66
3. KGSS-2008 조사 일정 .....	66
4. 면접 기록표 .....	67
5. 미완료 설문 기록사항 .....	68



## **I.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소개**



## 1. 조사 개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 이하 KGSS라고 칭함)는 매년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및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과학 기초 원자료를 생산해서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공익적 목적의 사회과학 자료 창출 및 확산 사업이다.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삼고,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GSS 형태의 조사들의 내용을 일부 수용함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적절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그 설문지는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5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들이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이 격년 주기로 공동 개발하여 조사하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의 주제모듈, 그리고 특별 연구를 위한 주제모듈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현지조사는 전국 가구로부터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method)으로 추출한 표본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일대일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KGSS는 여느 조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첫째, 설문구성, 표본추출, 현지조사, 자료처리 등 조사의 전 과정에서 조사방법의 제반 원칙을 엄정히 준수한다. 둘째, 한국사회의 주요 구조적 구성 요소들을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 자료를 생산한다. 셋째, 반복핵심설문 이외에도 다양한 모듈들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주기적·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통시적 사회변화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생산한다. 넷째,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공동으로 모듈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제 비교 연구를 가능케 한다. 다섯째, 생산된 원자료를 공신력 있는 국내외의 사회조사 데이터 아카이브에 저장하여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이용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 KGSS는 이처럼 ‘양질의 사회조사 자료의 공익적 생산과 확산’을 기본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 자료의 학술적 가치, 활용도, 기여도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은 사회기초 조사 통계 자료에 대한 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그 예비연구(Pilot Study)를 2002년 기초학문지원사업의 지정과제로 한차례 공모한 바 있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 (<http://www.src.re.kr>)는 그 당시 이 지정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라는 이름으로 예비연구를 수행하고, 예비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구성, 표본추출 방법, 현지조사 진행 등 조사설

계의 여러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듬해인 2003년에 제1차 KGSS를,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4년에는 제2차 KGSS를 역시 학진의 기초학문육성 과제로 지원 받아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차적 과제들의 성공적 시행에 힘입어 서베이리서치센터는 KGSS의 명실상부한 주관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제3차 KGSS(2005), 제4차 KGSS(2006), 제5차 KGSS(2007)에 대한 연속적 지원을 역시 학진으로부터 제공 받아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2. 조사내용

KGSS는 크게 반복핵심 조사, ISSP 주제모듈 조사, EASS 주제모듈 조사, 특별주제모듈 조사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구성되는데, 각 조사의 성격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반복핵심 조사

반복핵심 조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서, 그 설문은 각종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 등의 핵심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200여 개의 변수들로 구성된다. 이 설문은 학술적 중요성이 현격한 주요 사회적 사안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회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 내용은 미국의 GSS를 위시해서 유럽의 20여 개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ESS(European Social Survey), 일본의 JGSS(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s), 대만의 TSCS(Taiwan Social Change Survey), 중국의 CGSS(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등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문항들에 한국의 사회문화적·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민족통일, 정치이념, 경제·노동 문제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ISSP와 EASS 등 국가 간 비교연구를 지향하는 국제조사협력기구에서는 표준화된 분석을 위하여 이른바 '표준배경변수'(Standard Background Variables)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로서 KGSS의 반복핵심 설문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매년 조사되는 KGSS의 반복핵심 설문들을 주요 항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 관련 문항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정당, 선호정당, 정당 평가, 국정 운영 평가,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민족 통일 문제 등
경제 관련 문항	경제만족도, 경제전망, 자본주의의 이미지, 대기업의 이미지 평가, 대기업에 대한 정책 평가,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등
사회 관련 문항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 신문구독 및 TV시청, 인터넷·이메일·휴대전화의 사용 행태 등
배경 변수 문항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 과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비동거 가족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수, 가구원 중 취업자 수, 종교, 가계소득,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직업, 산업 등

## 2) ISSP 주제모듈 조사

ISSP(<http://www.issp.org>)는 국제비교분석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에 창립된 국제사회조사기구로서, 2008년 5월 현재 45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의 회원국들은 매년 개최하는 총회에서 조사 주제를 정하고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조사하게 한다. 이 조사로부터 산출되는 자료는 국제비교 연구에 관한 한 그 학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ISSP가 지금까지 개발하여 공동으로 조사한 주제모듈은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1985, 1990, 1996, 2006),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1986, 2001),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1987, 1992, 1999),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Family & Changing Gender Roles)」(1988, 1994, 2002), 「노동지향(Work Orientations)」(1989, 1997, 2005), 「종교(Religion)」(1991, 1998), 「환경(Environment)」(1993, 2000),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1995, 2003), 「시민권(Citizenship)」(2004), 「레저와 스포츠(Leisure Time & Sports)」(2007), 등 모두 10가지이다. 2008년 조사의 주제모듈은 「종교 III」이며, 향후에는 2009년의 「사회불평등 IV」, 2010년의 「환경 III」, 2011년의 「건강」 등이 예정된 상태이다.

한국에서의 ISSP 모듈 조사는 본 연구소(SRC)가 2003년 ISSP 총회(Obernai, France)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회원기관으로 공식 지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는데, 2003년 제1차 KGSS에서는 당해 연도 지정모듈인 「국민정체성 III」에 부가하여 「노동지향 II」(1997) 및 「사회불평등 III」(1999) 그리고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 III」(2002) 모듈의 축약본을 포함시켜 조사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4년의 제2차 KGSS에서는 당해 연도 지정모듈 「시

민권」에 「사회연결망 II」(2001) 모듈을 부가하여 조사하였으며, 2005년 제 3차 KGSS에서는 「노동지향 III」(2005)모듈을, 2006년 제4차 KGSS에서는 「정부의 역할 IV」(2006) 모듈을, 2007년 제5차 KGSS에서는 「레저와 스포츠(Leisure Time & Sports)」(2007) 모듈을 조사하였다.

올해 제6차 KGSS에서는 「종교 III」(2008) 모듈을 포함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종교 III」 모듈에서는 종교기관에 대한 평가, 종교 지도자에 대한 평가,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의견, 무신론 vs. 유신론, 사후세계·기적에 대한 믿음, 종교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 등 종교생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EASS 주제 모듈 조사

EASS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 형태의 사회조사를 시행중인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기관들 사이에 국제지역연구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의 주도 하에 2003년 신설된 동아시아 사회조사연합기구이다. 이 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조사 기관들(한국의 KGSS, 일본의 JGSS, 중국의 CGSS, 대만의 TSCS)이 격년 주기의 주제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조사하는데, 전 세계적 규모의 ISSP(1984년 창설) 및 유럽 대륙의 ESS(European Social Survey, 2002년 창설)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창설된 국제 사회조사연대기구이다.

EASS의 첫 모듈주제인 「동아시아의 가족」(Families in East Asia)은 2006년에 실시되어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고, 2008년 12월에 그 첫 번째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ASS의 모듈도 ISSP와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구성된 설문개발팀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사전검사를 거쳐 확정된다. 2008년으로 예정된 두 번째 모듈조사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Culture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이며, 4개국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토의를 거쳐 2008년 현재 설문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8년 6월 한국의 조사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현지조사가 곧 진행될 계획이다. 2010년으로 예정된 세 번째 모듈의 주제는 건강(Health in East Asia)으로 결정된 상태이며, 각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설문개발 단계에 있다.

EASS는 회원 기관들이 제출한 원자료의 주요 인구학적 변수들(예, 성별, 연령, 교육, 경제활동 상태 등)을 해당 국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예, 인구센서스 등)과 교차 검토하여 그 자료가 해당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될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한 다음 아카이빙을 한다. 이같이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EASS 자료를 이용한 국제 비교연구들은 국제적 신뢰도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EASS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제도적 일반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요인에 기인하는 각 국가의 특수성과 상대성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아울러, 이 자료를 이용한 서구사회들과의 비교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유한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4) 특별 주제모듈 조사

특별 주제모듈 조사는 본 연구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듈 조사이다. 이 모듈 조사는 반복핵심 조사, ISSP 주제모듈 조사, EASS 주제모듈 조사 등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특유의 주제에 대한 필요성(예, 한국사회 특유의 주제 혹은 본 연구소 특유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 당해 연도의 ISSP 혹은 EASS 모듈 조사와 유기적으로 잘 통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년 동안에는 모두 두 가지 특별 주제모듈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하나는 2005년의 「불평등과 공정성 IV」 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의 「문화 산업과 소비」 이다. 구체적으로, 2005년의 KGSS에 포함된 특별주제모듈은 「불평등과 공정성 IV」 으로서, 이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의 주도로 1990년부터 5년 주기(1990, 1995, 2000)로 반복되어온 조사 연구를 2005년부터 본 연구소가 인계 받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및 한국민이 지각하는 공정성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의 조사는 네 번째 반복 시도에 해당한다. 이 조사에서는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지각, 경력몰입,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불공정 대처 행태, 보수 결정요인 평가, 직업평가 등이 폭넓고도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한편, 2007년의 KGSS에서는 「문화 산업과 소비」 를 특별 주제모듈로 다루었는데, 이 모듈은 본 연구소에서 정보통신연구원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한 새로운 모듈로서, 21세기 들어 급증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 산업과 소비」 모듈에서는 문화적 취향, 탈물질주의의 가치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사용 경험·빈도·강도, 고전음악과 고전미술에 대한 관심, 문화적 자본의 소유, 문화예술활동 참여, 문화예술 소비 행태, 문화예술 관련 정보취득방식, 가상공간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와 정보교환 등이 다양하고도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각 연도의 특별 모듈은 해당 연도의 ISSP 혹은 EASS 모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2005년 특별주제인 「불평등과 공정성 IV」 모듈은 당해년도 ISSP의 「노동지향」 모듈 내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2007년의 특별주제 「문화 산업과 소비」 모듈 역시 ISSP의 「레저와 스포츠」 모듈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자료로부터 수많은 다양한 심층적 연구들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표집방법

KGSS는 모집단에서 최종 표본을 선정하기까지 체계적이고 엄격한 표집절차를 준수한다.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ISSP 및 EASS 등 국제사회조사 기구들에 가입되어 있어 국제적인 표집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세계 수십 개 나라들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 표집방법 요약

KGSS의 표집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모집단: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성인 남녀
- 표본크기: 2,500개 (제1, 2차 KGSS에서는 2,000이었으나 제3차 조사부터 2,500으로 증대)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 2) 표집의 구체적 절차

표집의 구체적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표집	최종 표집블럭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전국의 광역시·도의 인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
2단계 표집	각 광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동·읍·면을 인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
3단계 표집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럭(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로 추출
4단계 표집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표집원(연구원보)이 가구의 표집틀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두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
5단계 표집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실제 생일 기준)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

앞의 박스 안에 제시된 표집 절차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 ① 1단계 표집 (인구비례별 표집 블록 수 배분)

최종 표집블록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전국의 광역시·도의 인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단계 표집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단계 표집 방법: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표집블록 수 배분

번호	지역(PSU)	인구(단위:천 명)	인구비율	표집 블록 수
1	서울특별시	10,192,710	0.21	41개
2	인천광역시	2,664,576	0.05	11개
3	대전광역시	1,475,659	0.03	6개
4	광주광역시	1,413,444	0.03	6개
5	대구광역시	2,493,261	0.05	10개
6	부산광역시	3,587,439	0.07	15개
7	울산광역시	1,099,995	0.02	4개
8	경기도	11,106,211	0.23	45개
9	강원도	1,503,806	0.03	6개
10	경상북도	2,681,364	0.05	11개
11	경상남도	3,196,953	0.06	13개
12	전라북도	1,862,277	0.04	8개
13	전라남도	1,929,836	0.04	8개
14	충청북도	1,506,716	0.03	6개
15	충청남도	1,995,531	0.04	8개
16	제주도	559,258	0.01	2개
합계		49,269,036		200개

### ② 2단계 표집(인구비례에 의한 동·읍·면 추출)

1단계 표집에서 각 광역시, 도별로 배분된 표집 블록 수만큼의 동·읍·면을 인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도시의 경우는 동을, 농촌지역의 경우는 읍/면을 대상으로 전체

동리스트나 읍면리스트를 작성한다. 이 리스트를 기초로 각 동읍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난수(random number)가 뽑힐 확률을 비례적으로 배분하여 각 psu별 이차표집단위인 동읍면을 선정한다.

#### ※ 2단계 표집 예시 1: 서울특별시에서 동 선정하기

서울의 경우, 41개의 최종표집단위(동)가 할당됨. 전체 동리스트에서 각 동의 인구수를 고려한 난수에 입각하여 인구\*난수 값이 높은 41개의 동을 추출한다. 전체 동 리스트 중 현재 보이는 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서울시 군자동, 길음1동, 길동, 남가좌동 등이 선정되었다. (아래 표 참조)

〈표〉 2단계 표집 예시 1: 서울특별시에서 동 선정 하기

도/시	군/구	읍/면/동	인구(단위:천 명)	난수	인구*난수	선정순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의제3동	30,245	0.813863	24,615.29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군자동	21,442	0.968656	20,769.93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호2가동	12,357	0.934802	11,551.35	
서울특별시	강북구	길음제1동	28,455	0.892829	25,405.46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길제1동	24,922	0.772642	19,255.79	
서울특별시	강북구	길제2동	27,819	0.974729	27,116.00	1

#### ※ 2단계 표집 예시 2: 경상북도에서 동·읍·면 선정하기

경북의 경우, 11 개의 최종표집단위(읍/면)가 할당됨. 전체 읍면리스트에서 각 읍면의 인구수를 고려한 난수에 입각하여 인구\*난수 값이 높은 11개의 동을 추출한다.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오천읍 등 11개가 선정되었다 (아래 표 참조)

〈표〉 2단계 표집예시 2: 경상북도에서 동·읍·면 선정하기

도/시	군/구	읍/면/동	인구(단위:천 명)	난수	인구*난수	선정순위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상대2동	12,234	0.794636	9721.58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송도동	19,500	0.303375	5915.81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	30,237	0.767534	23207.952	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	40,482	0.843045	34128.178	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장기면	5,588	0.078300	437.544	

### ③ 3단계 표집(최종 표집 블록인 반 혹은 리의 선정)

이렇게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록(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적으로 선정함. 이를 위해서는 해당 동과 읍면에 대하여 각각 통/반의 리스트나 리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로 난수를 추출하여 최종표집단위 1개를 선정한다.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에서 뽑힌 11개 반 혹은 리 중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진전리가 선정되었다. (아래 표 참조)

〈표〉 3단계 표집 예시: 경상북도에서 뽑힌 동·읍·면으로부터 통/리/반 선정하기

조사구번호	조사구			선정 통/리	선정 반
55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1리	
552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0	2
553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10	5
554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	2	7
555	경상북도	구미시	양포동	6	2
556	경상북도	김천시	대곡동	35	5
557	경상북도	영천시	동부동	18	3
55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오천읍	진전리	
55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	택전2리	
560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내련1리	
561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용흥동	23	1

### ④ 4단계 표집(조사가구의 선정)

표집원(sampler=연구원보)이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 속한 모든 가구에 대한 가구표를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무작위로 표집함 (아래 표 참조). 이것이 조사대상 가구가 됨. 마지막으로 연구원보는 선택된 최종 조사대상 가구를 표에 정리하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원의 가구 방문이 시작된다.

〈표〉 4단계 표집 예시: 경상북도에서 뽑힌 통/리/반으로부터 조사가구 선정하기

가구번호	주소1(시/도, 군/구)	주소2(동, 통, 반)	주소3(상세주소)	선정여부
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19통 5반	232-2번지 정이천님 댁	
2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19통 5반	256번지 박정순님 댁	
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19통 5반	195번지 안일성님 댁	v
5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9통 5반	128번지 박덕순님 댁	
5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9통 5반	129번지 신만필님 댁	v

〈표〉 최종 선정된 조사 대상 가구 명단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주소1(시/도, 군/구)	주소2(동, 통, 반)	주소3(상세주소)
558	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307번지
558	2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195번지
558	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232-1번지
558	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131번지
558	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166번지
558	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421번지
558	7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20-4번지
558	8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44번지
558	9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05번지
558	1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91번지
558	1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29번지
558	12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42번지

#### ⑤ 5단계 표집 (최종 응답자 선정)

최종적으로 선정된(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실제 생일 기준)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한다. (아래 표 참조)

〈표〉 선정된 가구에서 최종 응답자 확인 방법 예시

가구원 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일 (양력·음력, 호적 상의 생일 등은 상관 없으며, 실제 생일이 기준임)	비고
1	신만수	본인	5 월 17 일	
2	최영희	처	9 월 19 일	
3	신천수	아들	4 월 5 일	최종 면접자
4	신영수	아들	9 월 8 일	
5	신희수	딸	6 월 7 일	

## 4. 현지조사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기간: 2008년 6월 29일부터 2008년 7월 20일까지 약 3주
- 조사팀 구성: 지도교수 1인과 연구원보 1명, 학부생 면접조사원 6~14명으로 이루어진, 전국 20여개 대학의 현지조사팀
- 조사방법: 응답자에 대한 면대면 설문조사(Face-to-face survey) (조사자 기입법)
- 확인조사: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조사가 거의 완료될 시점부터 표본 대체 여부를 전화조사 및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확인조사
- 추후조사: 설문지를 검토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사례들에 한해서 보충 조사, 표본 대체가 발견되는 경우 모두 재조사

## 5. 자료 이용

KGSS는 사회조사의 방법론적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활용도 또한 매우 높다. 그리고 KGSS는 ISSP 및 EASS의 연차 주제모듈을 포용하는 반복조사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한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와 국제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KGSS 조사 원자료(2002~2007 KGSS)는 2004년 10월을 기점으로 매년 5월마다 한 차례씩 누적적으로 아카이빙된 이후 매우 활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카이빙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GSS 자료를 이용한 연구 논문들이 이미 상당수 발표되었고 또 현재에도 여러 연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KGSS 자료의 서비스와 기대되는 학술적 및 사회적 활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 KGSS 자료 서비스

KGSS의 원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 영구 보존되어 국내외 사회과학자와 사회과학도 및 기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된다. 동 자료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KGSS 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홈페이지(<http://www.kosdda.or.kr>) 초기화면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원자료 이외에도 설문지, 코드북 및 원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이나 저서, 진행 중인 연구들 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KOSSDA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적 연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일반 이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개년 자료가 통합된 한국종합사회조사누적자료(Cumulativ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를 지난 5월에 공개하였다. 이 자료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수들의 구성과 순서배열은 이용자들이 자료의 구조와 내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변수들은 크게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 (2) 핵심반복설문, (3) ISSP의 연차적 주제모듈, (4) EASS의 주제모듈, 그리고 (5) 가구 및 가구원 정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KOSSDA를 통한 아카이빙 서비스와 별도로 서베이리서치센터는 KGSS 홈페이지(<http://www.kgss.re.kr>)를 구축하고 KGSS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연구설계, 코드북, 인덱스 등을 웹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KGSS 인덱스는 변수명, 변수값, 빈도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KGSS 자료를 분석해서 산출된 각종 연구결과물(학회발표문, 출판저서, 학술지게재논문 등)의 원문 및 색인 목록 등도 제공한다.

KGSS 자료 중 ISSP 주제모듈 자료는 ISSP의 아카이브「Zentralarchiv fuer Empirische Sozialforschung, University of Cologne」(<http://www.gesis.org/ZA>)에도 저장되어 다른 회원국들의 자료와 함께 전 세계에 동시에 서비스된다. 2006년에 처음으로 수집된 EASS 자료는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 2008년 3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열린 EASS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서베이리서치센터를 EASS 자료의 생산과 배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도 이에 부응하여, EASS 자료확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서베이리서치센터는 2008년 12월부터 EASS 자료를 아카이빙 해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서비스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웹사이트(<http://www.eass.info>)를 개발 중이다.

## 2) 학문적 활용

### (1) 한국사회에 대한 횡단적 연구

KGSS 자료는 매우 상세한 수준의 기초적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들과 더불어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가치, 태도, 행위 등을 묻는 방대한 내용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 영역에 대한 주제별 탐구를 가능하게 하며 한국사회의 다각적인 측면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도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 더구나 ISSP와 EASS의 연차적 주제모듈조사 자료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반복핵심설문 자료와 연동되어 수많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앞으로 KGSS를 활용한 각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의 축적은 한국사회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국제비교

의 견지에서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2) 사회변동의 연구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를 보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계열적 자료가 절실히 요청된다. KGSS는 주요 사회 인구학적 속성과 태도 및 행위를 매년 반복하여 조사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해마다 반복 조사된다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여실히 읽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처음 몇 년 동안의 KGSS 자료는 시계열적 연구에서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KGSS가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회변화의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자연적으로 누적될 것이다.

KGSS 자료의 시계열성은 반복핵심질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ISSP 및 EASS의 주제 모듈들은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순환적으로 조사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이들 모듈 조사 또한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예를 들어, 1987년 주제 모듈인 「사회불평등」은 1992년과 1999년에 반복 조사되었으며, 1988년의 주제 모듈인 「가족과 성역할 변화」의 경우는 1994년과 2002년에, 1995년에 조사된 「국가정체성」 모듈은 2003년, 1985년의 주제모듈인 「정부의 역할」모듈은 1990년, 1996년, 2006년에 각각 반복 시행되었다. 모듈주제의 주기적 순환은 ISSP뿐 아니라 EASS도 표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ISSP 및 EASS의 순환성은 연구의 지평을 횡단적인 국제비교연구를 넘어 시계열적인 국제비교연구로 크게 확장시킬 수 있게 해준다.

## (3) 국제비교연구

ISSP와 EASS는 중요 국가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대기구이다. 이 기구들의 회원국들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사회과학 연구기관들로서 대부분이 각 국가의 주요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만큼 이들의 조사는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자료를 산출해낸다. ISSP와 EASS의 모듈들은 주제별로 구성된 설문 개발팀(Drafting Group)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사전검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들 자료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들은 국제적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KGSS 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연구는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제도적 일반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요인에 기인하는 각 국가의 특수성과 상대성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4) 사회조사방법론 연구

KGSS 자료는 한국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연구에도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사회조사가 시행되지만 조사방법론의 제반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는 사실 그다지 흔치 않다. KGSS는 국제적 기준의 사회조사방법을 엄격히 준수하기 때문에 KGSS 자료의 생산 방식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여러 사회조사들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사회조사자료 수집 방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KGSS 자료는 각종 방법론적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KGSS 자료를 이용한 방법론적 연구과제들로는 조사표 구성, 각종 설문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및 그러한 반응과 응답자의 배경변수와의 상호작용, 항목별 무응답(non-response) 성향과 무응답으로 인한 오차 측정, 표집의 대표성, 국제비교 연구방법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마다 수집된 KGSS 자료를 통해 자료수집 방법론상의 문제들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3) 사회적 활용

KGSS, ISSP, EASS 등의 자료는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GSS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과 관련해, GSS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자들은 사회과학자의 역할을 기상학자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Davis, Smith, and Marsden 2000). “언론이나 상업적인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특정 이슈들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부상하는 시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상학자들이 가뭄이나 폭우에 상관없이 언제나 강수량 측정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일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를 읽어내는 데 있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사회의 현재와 변화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KGSS 자료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은 앞서 기술된 자료의 우월성을 고려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KGSS의 기초 통계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집 시리즈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 관계, 기업계, 언론계 등에서도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자료집이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부, 기업,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의 운영자

에게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고급통계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KGSS는 각종 언론사의 보도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2003년 첫 조사 이후 KGSS의 주요 분석내용이 매년 중앙일보의 특집기사로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와 부산일보, 경북일보, 경인일보 등의 지역신문,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등의 영자신문에서도 KGSS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KBS, MBC, SBS의 TV 뉴스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도 KGSS를 활용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소개된 바 있다.

#### 4) 교육과의 연계 활용

KGSS 자료는 연구용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용으로도 그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미국의 GSS를 예로 들자면, 매년 약 25만 명의 학생들이 GSS 자료를 활용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출판된 226종의 대학 교재에 GSS 자료가 인용되고,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사회조사방법론·사회통계학 및 관련 교과목에서 GSS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Davis et al., 2000).

한편 우리나라 대학에서 KGSS 자료가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은 미국의 GSS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KGSS의 현지조사 협력교수의 대부분은 사회조사방법론과 통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어서 그 자료를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력교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매년 대학간에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국의 상당수 대학들에서 KGSS 자료를 실습자료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3월 현재 KOSSDA에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자료를 신청한 전체 건수 343건 가운데 230건이 원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실습용이다. KGSS 자료는 사회과학 계열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교육실습용 혹은 학위논문작성용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것 이외에도 KGSS는 현지조사 과정에 매년 약 200여명의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을 연구원보와 면접조사원으로 직접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각종 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사회과학 계열의 학·석·박사 과정 학생들로서, 매년 서너 차례에 걸친 워크숍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현지조사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설문구성, 표본추출, 조사 관리·감독, 사전조사 등)에 대한 교육실습을 받고 실제 현지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KGSS 조사원 인증서》와 《KGSS 연구원보 인증서》를 수여해서 국내에서 가장 어렵고 수준 높은 사회조사에 참여해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 경력을 심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

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연구원보와 조사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장차 유능하고 성실한 사회조사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KGSS는 국내 조사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 **II. 조사원 면접 지침**





## 1. KGSS-2008 현지조사

현지조사는 KGS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사 내용, 표집 방법, 혹은 조사팀 조직이 아무리 훌륭히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1) 조사원의 역할

#### (1)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에게 맡겨진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조사는 결과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표본으로 정해진 응답자를 만나서 모든 설문에 대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원이 숙지하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매우 많고, 이 임무들을 소홀히 할 경우 성공적인 조사를 이루어내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 절에서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숙지하고 수행해야 할 임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 ① 조사 완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사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조사를 완결하는 것이다. 조사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최소한 65% (예: 12 케이스 중 최소 8 케이스)의 응답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조사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자 또한 가장 어려운 임무이다. 조사의 완결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강조하건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해 조사를 완결 짓는 것이 조사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각 조사원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 ② 원칙에 따른 조사

조사를 완결하였다고 해서 성공적인 조사라고는 할 수 없다. 성공적인 조사는 KGSS 조사 방법 원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 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완결 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KGSS 조사 원칙을 따르지 않은 조사는 비록 조사를 성사시켰다고 할지라도 완결된 조사로 볼 수 없고, 원칙에 맞는 조사가 될 때까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 조사

의 기본 방침이다. KGSS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앞 장, 「한국종합사회조사 소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다. 조사원은 앞서 소개된 KGSS 조사 개요, 표집 방법, 조사 방법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하나의 조사를 반드시 KGSS 조사 원칙에 따라서 수행해야만 한다.** 조사현장에 나갔을 때 조사원이 기억하고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KGSS 조사 원칙 두 가지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 ■ 조사 원칙 1: 가구 대체 불가

앞 장에서 KGSS 조사 대상 가구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했듯이 KGSS 조사는 과학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표집방법을 이용한다.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표집 방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표본이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골고루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인지의 여부이다. KGSS가 이용하는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방법」은 바로 그런 대표성이 있는 표본 추출을 위해 연구·개발된 방법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선정된 2,500 가구는 가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조사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조사 대상 가구에서 사람을 접촉하기가 힘들다거나, 가구원 및 응답자가 조사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임의로 가구를 대체해 버린다고 하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한 가구 대체가 하나라도 일어났을 때, 그 하나의 대체 건으로 인해 우리는 KGSS의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KGSS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완결 설문지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한 검토 작업을 수차례 진행하여 가구대체가 일어난 케이스를 거의 전부 찾아내고,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를 하도록 한다. 결국 가구대체는 서베이리서치센터에게도 조사원에게도 크나큰 경제적, 인적, 시간적 손실을 유발하는 중차대한 과오이다.

기억하자. **조사원의 임의대로 표본가구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된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조사원은 반드시 연구원이나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 조사 원칙 2: 응답자 대체 불가

가구대체 불가의 원칙만큼이나 중차대한 또 하나의 원칙은 응답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8년 KGSS의 최종 표본, 즉 응답자 선정 방식은 앞서서도 설명된 바 있다. 즉,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바로 응답 대상자이다. 조사원의 임무는

표본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 대상자를 가려내는 일부터 시작되는데, 조사원은 반드시 선정된 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응답자로부터 조사협조를 받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조사원은 응답자로부터 조사승낙을 받아내기까지 수차례의 방문을 시도해야만 하는 등 생각지도 않은 갖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조사원은 가구의원의 종용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인내의 한계로 인해서 등, 응답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조사 대상을 대체하고 싶어질 수 있고 과거 조사에서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구대체가 절대 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대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과오이다**. 그 이유는 가구대체불가의 이유와 같다. 즉, 응답자대체가 하나라도 일어났을 때, 그 하나의 대체 건으로 인해 우리는 KGSS의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KGSS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구대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대체가 발견 되었을 때, 조사원은 해당 가구를 재방문하여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만 한다. 결국 응답자대체는 가구대체와 마찬가지로 서베이리서치센터에게도 조사원에게도 크나큰 경제적, 인적, 시간적 손실을 유발하는 중차대한 과오이다.

기억하자. **조사원은 응답자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된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응답자에게 설문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조사원은 반드시 연구원이나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KGSS 조사의 핵심 원칙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킵시다.**

**가구대체 절대 불가!**

**응답자대체 절대 불가!**

### ③ 조사 기간 준수

2008 KGSS 조사 기간은 **6월 29일~7월 19일, 3주간**으로 정해져 있다. 조사원은 KGSS 조사 원칙에 따른 조사를 이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완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사 방법론상의 이유로, 한 조사가 동일한 기간 내에 이루어짐으로서 시간의 변수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한국사회에 많은 예기치 않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변수로서 그러한 변화는 결국 응답자의 응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조사의 오류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원은 동일한 시간, 즉, 정해진 3주간의 조사 기간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자에게도 조사원에게도 조사는 더욱 힘들어지는데,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완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④ 연구원보 및 서베이리서치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원보 및 서베이리서치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사원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검열체계라기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오류를 최대한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조사원이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지원체계이다. 조사원은 조사의 전 기간 동안 자신의 조사 진행상황과 질차를 연구원보와 항상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설문지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연구원보에게 가능한 한 즉시 전달하여 검토한 후 SRC에 우송할 수 있도록 한다. 매주 연구원보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연구원보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구원 및 응답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조사원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예기치 않은 사고 및 여러 긴급한 난관이 발생했을 때 조사원은 연구원보는 물론 서베이리서치센터에도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원 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연구원보 및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 (2) 조사원의 자세

앞서 설명한 조사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원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① 조사에 임하는 기본자세: 책임감, 자발성, 자신감, 유연성, 자부심

### ■ 조사원의 기본자세 1: 책임감

조사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은 조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조사원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결하지 못 했을 때, 이는 결국 다른 누군가가 그 미완성 케이스를 담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상황은 조사원뿐만 아니라, 응답대상자, 타 조사원, 연구원보, 그리고 서베이리서치센터, 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많은 심리적, 시간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각 조사원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자신 스스로 완수하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 ■ 조사원의 기본자세 2: 자발성

조사원은 매일 매일 일을 하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의 책임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조사원은 연구원보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그날그날의 조사 계획, 목표설정, 조사 전략, 조사 성과, 등을 꼼꼼히 점검, 평가, 재조정하는 등, 자발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 ■ 조사원의 기본자세 3: 자신감

KGSS 는 결코 쉬운 조사가 아니다. 조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조사원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량을 결국 달성한다는 것이다. 조사원은 이 점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더라도 조사환경에 적응하고, 응답자를 설득하여 끝까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기억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조사원의 자신감은 결국 조사를 완결하게 한다는 것을.

### ■ 조사원의 기본자세 4: 유연성

조사원은 다양한 배경, 연령,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면접하게 되므로, 자신과 다른 생활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짜증스러운 상황, 예컨대 응답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날씨에 밖에서 면접을 해야 한다면, 혹은 면접 시간과 날짜를 바꾸기 위해 응답자가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다면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 조사원의 기본자세 5: 자부심

조사원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KGSS 자료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 뿐 아니라 공공정책입안가, 학생, 일반 국민에게도 전달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실제로 그간 KGSS의 자료 및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는 조사방법과 관련된 학계 내외의 교수학습 기관 혹은 개인, 정책 수립 및 행정 수행 관련한 정부부처, 신문·텔레비전 등의 언론에도 인용 혹은 이용되어 왔다. 이처럼 KGSS자료가 사회 각 영역에서 그 지명도가 높아져 가는 중요한 이유는 이 자료가 국내의 그 어떤 자료보다도 신뢰성이 높고, 한국 사회 변화의 흐름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등, 이용 및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조사원은 KGSS자료의 학문적·사회적·역사적 가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습득한 경험들은 후에 서베이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데 훌륭한 밑받침이 될 것이다.

### ② 응답자 면접 시 기본자세: 모든 설문에 대한 유효 응답 확보

실제 면접에서 조사원이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설문에 대해 빠짐없이 유효한 응답 (valid response)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효한 응답이란 '모르겠다' '선택할 수 없다' 등의 응답이 아닌, 실제 값이 있는 응답으로, 조사원은 반드시 그러한 유효 응답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유효응답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모르겠다' '선택할 수 없다' 등의 응답은 나중에 자료를 분석할 때 분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자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KGSS조사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이 아닌 응답자와의 면대면 면접 및 조사원이 설문지를 기입하는 조사방법을 택하는 이유도 바로 유효 응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원은 면접 시 모든 설문에 대한 유효 응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 ③ 응답자 면접 시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려는 자세

위에서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유효응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응답자가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솔직하게 반영하는 유효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응답자가 면접 당시 주위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면접을 거부한다거나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응답을 한다면 이는 외부적 요인이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결국 자료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면접 당시 응답

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환경에는 가구원 개입 등의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조사원이 바로 그러한 편견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조사원이 응답자의 면접 협조 및 응답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을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라고 한다.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1: 첫 인상

응답자를 최초로 대면했을 때 조사원의 첫 인상은 응답자의 면접 협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조사원의 목소리, 억양, 얼굴 표정, 외양, 행동, 태도 등에 따라서 응답자가 면접에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원은 이 점을 명심하여 호감을 줄 수 있는 첫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2: 언어 구사 및 목소리

응답자와 첫 대면을 했을 때, 혹은 응답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과 첫 접촉을 했을 때 처음 약 30초 동안 조사원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면접의 성사가 좌우된다. 조사원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과 이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하며, 특히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응답자의 관심을 유발해내야 한다. 조사원은 정확한 발음, 자연스런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 응답자를 만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3: 의상

종종 첫인상이 면접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상 (신발, 화장, 장신구, 수염 등 포함)을 갖추는 것이 좋다. 적절한 의상은 면접이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입이 낮은 가구의 사람들을 면접하게 될 경우,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의사나 교수 등 수입이 높은 사람을 면접하거나 직접 직장으로 찾아가야 할 경우 그 분위기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조사원은 항상 단정하면서도 전문가적인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의상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배격해야 할 의상으로는 모자, 슬리퍼, 화려한 장신구, 수염, 등을 들 수 있다.

#### ■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4: 몸짓, 표정

몸짓이나 얼굴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비구어(non-verbal) 오류라 하는데 비구어

오류가 설문조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답자가 말을 할 때 조사원이 눈썹을 올리는 행위 하나에 의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미소를 짓는 것조차도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가 자신의 태도에 의해 영향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나 동시에 전문가적인 자세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 ▣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5: 언어

조사원의 질문, 프로빙(probing), 심지어 질문과 질문을 연결하는 말이나 응답자의 질문에 대한 조사원의 말 한마디도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 조사원은 특히 응답자의 응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응답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며, 응답자가 인자해 보인다면 하는 등 응답자의 성격에 대한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 2) 면접 지침

조사원의 주요 업무인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위 그림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 (1) 사전 준비

조사원은 조사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사전 준비에는 설문지 숙지, 표본 가구 위치 및 특성 파악, 조사 도구 준비, 등이 포함된다.

#### ① 설문 내용 및 설문 방법 숙지

KGSS설문지는 여타 설문조사에 비해서 내용이 길고 설문 방법에 있어서도 숙지해야 할 사항이 많다. 조사원은 조사 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설문내용, 설문 순서, 등을 완벽히 이해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조사원 스스로가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한 채 면접에 임했을 때 그 면



접이 원활히 수행될 리 만무하다. 설문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조사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조사원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조사원은 설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설문 방법에는 설문지를 읽어 주는 방법, 응답 범주를 읽어 주는 방법, 보기카드 사용법,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설문의 경우 읽어 주는 방법, 응답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을 때 조사원의 대응 방법, 등, 설문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요령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조사원은 이 모든 방법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칙에 맞는 면접, 돌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는 면접이 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 ② 표본 가구 위치 및 특성 파악

조사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조사원이 준비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으로는 표본 가구의 특성에 대한 이해이다. 조사원은 연구원보로부터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와 위치, 찾아 가는 방법 등을 소개받게 될 텐데, 연구원보의 협조 하에 표본 가구의 특성에 대해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도움이 되는 정보에는, 표본 가구가 있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표본 가구 주변의 특이 사항, 가구방문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조사원이 특정 가구를 방문할 때 갖추어야 할 외양적, 심리적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특히, 앞서 설명한 조사원의 첫 인상, 의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③ 조사 도구 준비

설문내용과 방법을 숙지하고, 표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면 조사원은 조사현장으로 나갈 준비가 거의 된 셈이다. 조사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조사원은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빠짐없이 갖추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한다. 조사도구에는 조사원 신분증, 본인 소속 학교 학생증, 조사 협조 공문, 서베이리서치센터 및 KGSS 소개 팸플릿, 등 조사원 및 KGSS 소개와 관련된 도구; 설문지, 보기 카드, KGSS 자료집, 조사 진행 기록표, 응답자에게 줄 인센티브, 등 면접과 관련된 도구; 그 외 필기도구, 등이 포함된다. 조사도구의 양이 많은 만큼 조사원은 누락되는 도구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한 후 조사현장에 나가야 한다.

## (2) 가구 방문 및 응답자 선정

### ① 표본가구 리스트 수령

조사원들은 연구원보로부터 아래와 같은 최종표본가구 리스트를 담당지역에 따라 받게 된다.

조사구번호						
002-	표본가구번호	가구주소				비고
	1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B02호
	2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102호
	3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202호
	4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302호

주: 최종 표본 가구 리스트 예시

조사원들이 방문하게 될 표본가구는 이미 해당 지역 담당 연구원보들이 직접 방문해서 표본가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이 주소로 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편지를 발송한 상태이다. 조사원은 해당 지역에 조사를 나가기 전에 연구원보에게 조사지역과 표본 가구의 위치 및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위의 표에서 '조사구번호=002'는 강남구 역삼1동에 할당된 조사구번호를 의미하며, '표본가구번호'는 역삼1동의 13가구에 대한 할당번호이다. 조사원들은 모든 설문지와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에 해당 조사구번호와 표본가구번호를 기입하여, 조사한 가구와 완료한 설문지와 혼동이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② 표본 가구 찾기 및 방문 시 주의 사항

#### ▣ 표본 가구 찾기

표본가구를 찾는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관계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관내도를 이용하거나 동네의 부동산,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도움을 요청하며,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이장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서비스 이용하거나 세탁소나 음식점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에 도움을 요청 할 수도 있다. (지도서비스 관련 사이트 : [www.congnamul.com](http://www.congnamul.com) / [www.maptopia.com](http://www.maptopia.com) / [www.hanmir.com](http://www.hanmir.com))

## ■ 가구 방문 시 주의 사항

표본가구를 방문하면 우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방문시에는 조사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학생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는 조사원의 경우 KGSS를 주관하는 본 연구소보다는 자신의 학교를 밝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조사원은 안내책자 등을 제시하면서 조사의 목적을 잘 설명하되, 이 때 KGSS가 학술조사라는 점, 전 세계 40여 주요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적 조사라는 점, 그 가구 및 응답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혔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자료 처리 과정에서 **응답자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는 제거 되고 응답내용은 오직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 준다.** 이 때 설문지 표지에 있는 인사말을 그대로 읽어 줄 필요는 없다. 조사원이 이 내용을 숙지한 후에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응답자에게 줄 사은품은 면접 시작 직전에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 종료 후에 사은품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조사원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면접을 하도록 설득하는데 보통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설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과 얼굴을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가구에서 약간이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표본 가구 혹은 응답자가 한 두 번 거부 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도 거부정도가 다르며, 계속해서 방문함으로써 조사원의 얼굴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협조를 이끌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3) 응답자 선정

방문한 가구에서 가구원과의 접촉이 일어 난 후 조사원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가구원 중에서 생일이 가장 빠른 응답자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 응답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

첫째, 표본가구를 방문해서 그 주소에 현재 살고 있는 만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연장자 순서대로 가구원 리스트에 기록한다. 모든 가구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니셜이라도 얻어내도록 한다.  
 둘째, 이름을 얻은 후에는 각 가구원의 연령과 생일을 물어 본다. 연령을 가르쳐주지 않을  
 경우라도 생일은 반드시 알아내야만 한다. 생일은 양력이든 음력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는 생일을 기록한다.  
 셋째, 이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최종 응답자로 선정한다. (또 다시 명심하자. **응답자  
 대체 절대 불가!!!**)

##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

표본 가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9 푸른마을아파트 108-1101

가구 번호

0	2
---	---

표본 가구에서 다음 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에 ○ 표 하십시오.

가구원 번 호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가구원 번 호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1	홍길동	본인	__ 5 월 __ 17 일	6	홍연우	딸	__ 8 월 __ 30 일
2	최영희	처	__ 9 월 __ 19 일	7			__ 월 __ 일
3	홍철주	아들	__ 4 월 __ 5 일	8			__ 월 __ 일
4	홍철우	아들	__ 9 월 __ 8 일	9			__ 월 __ 일
5	홍연정	딸	__ 6 월 __ 7 일	10			__ 월 __ 일

주: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 예시

가구원 리스트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은 사람은 리스트에서 제외되어야,  
 즉 조사 대상자가 안 된다는 점이다.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어린이
-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 학업, 취업, 군복무 등으로 상당 기간 출타해있는 사람
- 잠시 방문 중인 자녀나 손님

#### (4) 가구 방문 및 면접 시 당면하는 문제와 대처 방법

조사원은 처음 가구를 방문하는 단계로부터 성공적으로 조사를 완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때 그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요령껏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조사는 쉽지 않은 조사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보람도 큰 조사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의 완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절에서는 가구를 방문하는 시점부터 조사를 완결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들과 그 때 그 때의 대처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조사원은 여기의 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된 자세로 조사에 임하도록 한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과 여기에서 제시된 대처 요령이 꼭 정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나아가서, 그러기에 상황에 따라 조사원의 기지와 소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 ■ 빈 집이거나 응답 대상자가 장기 출타 중인 경우

빈집인 경우 주위 사람들이나 복덕방 등에 물어서 이사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얼마간 비워져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만약 리모델링 등 공사 중인 경우에는 역시 주위 사람들이나 복덕방 등에 물어서 공사가 끝나는 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한다. 이런 경우는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야 가구를 새로 추출할 수 있다.

장기출장을 간 응답자에 경우에는 우선 가구원에게서 응답자가 출장에서 언제쯤 들어오는 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간혹 가구원이 응답자가 오랫동안 안온다고 하면 조사원들이 다시는 안 올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구원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응답자가 출장에서 돌아올 날짜를 얻어내도록 하고, 날짜가 파악이 되시면 연구소에 연락을 주도록 한다. 이 경우 역시 연구소에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가구를 새로 추출할 지에 대해 결정한다.

반면에 출산 후 친정에 간 여성 응답자의 경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친정집으로 찾아가도 되는지 양해를 구해보는 것도 괜찮다.

##### ■ "한국종합사회조사가 뭔데요?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라며 불신을 표하는 경우

준비해 간 연구소 및 KGSS에 대한 브로셔와 신문 기사를 보여 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정 못 믿겠다면 연구소로 전화를 해 보시라고 설득한다. 또한 조사원을 못

믿겠다고 할 때도 연구소로 전화를 해 보시라고 한다. KGSS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에 예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간략하면서도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설명하도록 한다. (아래의 모범 대답 예시 참조)

## 한국종합사회조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 조사협조 설득은 이렇게 해보자!!

KGSS는 2002년부터 6년째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주관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사회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난 6년간 연구비를 전폭 지원하고 있을 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고 신뢰할만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의 가치관과 행동방식, 일상생활 양식, 등 다양한 내용을 매년 조사해서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고, 또한 어렵게 만든 이 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림대, 부산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교수님을 비롯해서 대학생, 대학원생 200여 명이 동원되어 여름 한 달 동안 조사합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학자들의 연구논문에 이용되거나, 학생들의 석사·박사 공부 논문에 직접 사용되고, 중앙일보 같은 일간신문의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널리 이용됩니다.

이 조사는 매우 힘든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6년째 지속되고, 그간 한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은 선생님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례가 되는 것은 알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빈 집 은 아니나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이웃집에 물어보아서 표본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을 대략적이라도 파악을 해 둔다. 그리고 명함에 조사 내용과 해당 가구에서 설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록을 한 후 그 명함을 문 안쪽 등에 놓고 온다. 이 때 조사협조공문과 본 연구소 안내책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락처 등을 함께 놓고 와도 좋다. 그러면 다음 번 방문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재방

문 시에도 표본가구에 아무도 없을 경우 시간을 체크한 후 방문 요일과 시간을 달리하여 접촉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평일에 직접 만나려면 오후 7시 정도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없거나 외국인이 사는 가구인 경우

이런 경우는 KGSS 표본에서 제외되므로 서베이리서치센터에 바로 연락을 주어야 한다.

#### ■ “꼭 생일이 빠른 사람이어야 하느냐”며 아무한테나 받으라는 경우

선정된 가구에서 마지막 한 분의 응답자를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작위로 공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정한 방법이 생일이 빠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가구에서 생일이 빠른 사람은 천차만별일 것임으로 응답자 추출상의 예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위의 두 상황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 보자.

#### ■ “왜 꼭 우리 집을 해야 하느냐”며 다른 집에 가보라는 경우

응답자가 전국의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본가구로 선정되었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응답자가 아닌 이웃분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은 대표성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된 자료는 일반 국민, 공공정책입안자, 학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응답자의 의견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준다. 표본으로 뽑힌 다른 가구는 이미 참여 했으며, 해당 가구에서 반드시 면접을 해야 하므로, 오늘 면접이 어려울 경우,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할 것임을 강조한다.

#### ■ 노령, 질병,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간혹 조사원이 응답자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설문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생일이 그 다음으로 빠른 사람으로 조사를 해도 되는지 연구소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한 문제이기에 응답자 대체가 불가하다. 노인, 질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이기에 그렇다. 이런 경우는 조사가 힘들더라도 되도록 설문을 진행하여 응답을 받아내도록 하고 정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연구원보에게 알리도록 한다.

##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해보자!!

### 왜 우리집에서, 왜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이, 왜 꼭 내가해야 하나?

이 조사는 전 세계 40여개 국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조사이고, 조사에 참여하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18세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조사의 경우에는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 (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이라는 방법으로 전국의 지역별 인구수와 가구수를 고려해서 가구와 응답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200개 지역을 선정하고(예: 서울 41지역/ 인천 11지역/ 부산 15지역/ 경기 45지역/ 강원 6지역/ 전남 8지역, 등 ), 그 200개 지역에서 다시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읍·면을 선정한 후, 통/반·리를 선정하고, 선정된 통/반·리에 있는 전체 가구 수에서 무작위로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뽑게 됩니다. 즉, 지역별 인구수와 가구수를 고려해서 200개 지역 선정하고, 각 지역당 12-13개 가구를 방문해서 총 2,500명 (200 지역 \* 12~13 가구)의 응답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종 응답자를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으로 정하는 이유는 선정된 가구에서 마지막 한분의 응답자를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작위로 공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생일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응답자를 뽑는다면 응답자 추출상의 예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응답자들을 선정하게 되면 가구 방문 시에 만나기 쉬운 분들 (예: 주부님이나 일이 없는 분들, 혹은 노인분들)이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인데 그 결과 대한민국 전체의 응답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며 무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경우

이러한 응답자에게는 설문내용이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공공에 발표될 때 응답자의 이름이 절대로 알려지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응답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20%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



니다”라는 식으로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재차 강조한다.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이유는 연구소에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신상에 대한 정보는 절대 보장됨을 강조한다.

#### ■ 바쁘다고 말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언제 시간이 나는지 여쭙어 본 후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조사의 목적 등을 잘 설명하고, 같은 지역의 다른 가구에서도 이미 조사를 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응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 많이 바쁘시면 한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방문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재방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혀 면접에 응해줄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다보면 응답자를 설득시킬 수 있으므로 한 두 번 방문한 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 ■ 응답자가 남자 조사원을 꺼리는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

주위에 위험한 이웃들이 많은지, 이 응답자가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에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본다. 비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눈 접촉을 많이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신분증과 본 연구소 안내책자 등을 건넨 후, 실내에서 면접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고 생각될 경우 실외에서도 면접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다: “아주 날씨가 좋은데 귀하가 원하신다면 밖에 평상에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겨놓는다. 재방문 시에는 여성 조사원과 동행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 집에 사람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경우

간혹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집안의 소음이 없어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밖에 서서 방문 목적을 간단히 설명한다. 그리고 준비해 간 메모지에 방문 날짜, 요일, 시간 그리고 재방문 일자를 기록하여 명함과 함께 두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돌아가는 것이 좋다.

#### ■ 아파트 경비원이 방문을 거부할 경우

추출된 표본지역이 아파트 단지인 경우 간혹 경비원이 조사원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학생신분임을 강조하고 판매나 광고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의 설문조사라는 사실로 경비원을 잘 설득해야 한다. 혹은 설문지나 인센티브를 가방에 넣은 후 조사원이 아닌 것처럼 출입을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는다.

#### ■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이나 저소득층 응답자들의 많은 경우 자신은 잘 모른다면서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조사원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설득을 한다.

#### ※ 예제

어르신께서 대한민국 전체의 노인분들을 대표해서 뽑으신 것이니 어르신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20, 30대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60,70대 어르신들의 생각도 또한 중요해요. 그러니 꼭 응답해주세요.

#### ■ 응답자가 없고 다른 가구원만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면접 약속을 받아낸다. 응답자를 설득할 때, 직접 만났던 가구원의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이 가구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답자의 연락처나 응답자가 주로 언제 집에 있는지 물어보라. 응답자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으로 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전화번호를 묻는다. 만일 대답해주지 않을 경우 응답자가 언제쯤 집에 있을 것 같은지 추측해 본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을 것 같은 경우 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이들만 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집 전화를 물어 전화번호를 파악한 후 저녁 때 정중하게 전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다음 시간 약속을 잡는다. 다시 방문을 한다면, 요일과 시간을 바꿔가며 방문을 하고 가급적 주말이나 주중의 이른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 농촌의 경우 농사철에는 논·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응답자가 없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다른 가구원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사협조가 더욱 용이해 질 수 있다.

#### ■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이 조사연구가 응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 등에 이용될 수도 있는 중요한 연구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이 면접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1) 귀하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2) 저는 귀하가 편한 장소에서 언제든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편한 시간에 여기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관점은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5) 귀하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등을 말해줄 수 있다.

#### ■ 응답자가 응답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응답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면접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친절히 대해 조사원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조사원이 면접을 위해 시도한 모든 과정을 연구원보에게 일단 설명하고 다음 과정을 상의한다.

#### ■ 응답자가 다른 일들로 분주한 경우

간혹 자영업자의 사업장에서 조사를 하러가거나 논이나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면접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옆에서 잠시 일을 거들어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응답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과 잠시 놀아주는 것도 좋다.

#### ■ 면접도중에 응답을 더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계속 면접을 시도한다. 면접이 너무 길어 응답자가 지루해 할 경우에는 설문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으며 만일 특정 문항 예컨대, 학력이나 수입 등을 말하는 것을 꺼릴 경우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 응답자가 시간상의 이유로 거부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면접할 날짜를 잡고 나온다.

#### ■ 설문지를 두고 가면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2500명의 응답자 모두가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기에 변동이 생기면 조사방법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설문지 복잡함때다가 중간 중간 비해당으로 건너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자가 대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 다른 가구원이 응답자의 조사를 만류하는 경우

다른 가구원이 응답자의 조사를 만류하는 경우는 가구원이 없이 응답자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구원과 마주칠 때마다 항상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한 주소에 찾아갔는데 1)만18세 이상의 가구원이 없거나 2) 극심한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3)그 가구에 사는 사람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원보나 본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이 가구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경우 조사원은 《조사진행기록표》에 이 가구의 번호와 함께 자세한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한다.

#### ■ 그 외, 응답 거부, 접촉 불가 등의 경우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하는 사항

- 응답자가 없을 경우 시간 및 요일 등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방문해 보았는가?
- 응답자가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가구에 이 연구의 소개책자 및 조사원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기록 등을 남기고 왔는가?
- 응답자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가구의 경우, 응답자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이웃집 등에 물어보았는가?
- 외부인 접근이 차단되는 건물의 경우 접근 방법에 대해 의논했는가?

### (5) 설문 진행 방법

응답자가 선정된 후 응답자가 자리에 있으면 즉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며, 부재중일 경우에는 약속을 잡아 재방문하여 면접을 성사시키도록 한다. 면접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면접 분위기 조성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은 면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면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 조사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 ■ 응답자 외 가구원 통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소득, 종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성격의 질문을 많이 다루므로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그들의 비밀을 위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면접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조사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응답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의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가 면접 내용에 관심을 보일 경우, 자신이 가져간 여분의 설문지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살펴보거나 기입하도록 한 후 이 설문지는 나중에 폐기함으로써 조사 자료에 섞이지 않도록 한다.
-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을 경우, 응답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돌보아달라는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도록 부탁한다.
-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응답이 옆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체크를 하도록 한다.
- 간혹 조사원 두 명이 동시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면접은 조사원 한 명이 진행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도록 해야 한다.

## ■ 화기애애하나 전문적인 분위기 조성

조사원은 응답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전문적인 분위기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답자는 조사원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더 협조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면접 오류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가 조사원을 친구로 여기게 되면 그 응답은 전문적인 협조 분위기를 유지할 때와 사뭇 다를 것이다.

### ② 설문 시 유의사항

설문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 호칭 사용

응답자나 다른 가구 구성원과 대화를 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에 사는 450대 여성에게는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적절할 것이나, 도

시의 30대 주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머니’도 많이 사용하는 호칭 중의 하나이나 때로는 이것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순서대로 설문하기

설문은 반드시 설문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 ■ 설문지 내용 그대로 읽어주기

질문은 쓰여진 그대로 읽어주어야 한다. 모든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구성된 것이므로 질문을 읽어줄 때 조사원이 어떠한 변화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사원 임의로 질문의 내용이나 어휘 등을 변경하는 것을 금한다.

#### ■ 정확하게 읽어주기

응답자가 질문을 정확하게 듣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원은 첫 번째 면접을 시도하기에 앞서 큰소리로 여러 번 질문을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질문들은 최대한 천천히 읽어주고 대화하는 톤을 유지해야 한다. 조사원이 급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응답자도 이 속도에 맞게 답하게 되는데 이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의 질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조사원이 모든 질문을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읽으면 응답자도 정확하게 응답하려고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질문을 읽을 때 평상시 대화에서 보다 더 천천히 읽으면서 강조해야 할 부분만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 ■ 빠짐 없이 유효 응답 받아 내기

모든 항목들에 빠짐없이 유효한 응답(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응답)을 얻어내도록 최선을 다한다. 앞의 질문이나 일반 대화 과정에서 이미 응답했는지라도 모든 질문은 응답자에게 반드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 질문은 앞에서 이미 응답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응답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혹 응답자가 응답 범주에 없는 대답을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어진 응답 범주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응답에 가장 가까울까요?'라고 하면서 최대한 유효응답을 받아내도록 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거나 끝까지 유효응답 주기를 회피할 경우, '모르겠다'에 체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간다.

## ■ 응답 범주 읽어 주는 방법

응답 범주의 숫자 가운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보기(①, ②, ③ 등)는 응답자에게 불러주고, 괄호가 쳐져 있는 보기( (1), (2), (3) 등)는 불러 주지 않는다. 이를 설문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폐쇄형 질문** : 응답 보기가 동그라미 쳐진 상태로 이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원은 응답범주를 명확히 읽어준 후,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명확하게 체크한다. 만일 응답 내용이 보기 중에 해당하는 것이 없을 경우 그 질문은 다시 프로빙되어야 한다.

예) 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남을 도우려고 한다      ☐ (3) 경우에 따라 다르다  
☐ ② 자신만을 위한다      ☐ (8) 모르겠다

☐

▶ **현장 코드 질문** : 응답보기가 괄호 쳐진 상태로 주어져 있다. 보기를 읽어주지 않되, 응답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미 나열되어 있는 응답범주에 조사원이 체크를 하는 질문 유형이다.

예)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 ☐ (01) 일주일에 여러 번      ☐ (06) 일년에 몇 번  
☐ (02) 일주일에 한 번      ☐ (07) 일년에 한 번  
☐ (03) 거의 일주일에 한 번      ☐ (08) 일년에 한 번 미만  
☐ (04) 한달에 두세 번      ☐ (09) 전혀 가지 않는다  
☐ (05) 한달에 한 번      ☐ (88) 모르겠다

☐

▶ **개방형 질문** : 응답범주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응답 보기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은 폐쇄형 질문보다는 많지 않다. 조사원은 응답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하거나 요약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만 한다. 응답자의 **응답내용 기록은 명확하고 자세할수록 좋다.**

예) 귀하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3.1 산업 및 직종 (직장명) \_\_\_\_\_

53.2 직위 및 업무내용 \_\_\_\_\_

#### ■ 비해당 (not applicable) 응답 범주

설문 가운데는 어떤 응답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자에게 배우자에 대해서 묻는 경우에는 “비해당”으로 체크한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조사원은 이것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 ■ '기타' 응답 작성 지침

어떤 설문의 응답 범주에는 '기타'라는 항목이 있고, 이런 경우는 그 내용을 질문하고, 조사원이 응답을 직접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원은 응답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묻고 자세한 응답을 적어야 한다.

#### ■ 조사원이 직접 응답 기입하기

만드시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 간혹, 설문지를 놓고 가면 작성해주겠다는 응답자들이 있으나, 최대한 설득을 해서 조사원과 응답자가 일대일 대면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 깨끗하게 기록하기

응답내용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명확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가 불명확하거나 읽기 어려운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질문의 맨 오른쪽 끝에 위치한 박스는 전산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체크 또는 기록하지 않는다.

#### ■ 개방형 설문 응답 작성 지침: 예) 직업 관련 설문

위의 '응답범주 읽어주는 방법'에서도 언급했듯이, 개방형 설문이란 응답범주가 제시되지 않고 응답자가 자신의 말로 응답을 하게 되는 설문을 말한다. 이런 설문의 경우 조사원은 응답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하거나 요약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또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개방형 설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응답자와 배우자의 직업 관련 문항이다 (위의 '응답범주 읽어주는 방법' 항목의 박스 참고). 직업관련 설문은 일하는 기관(직장)명, 직위,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 내용의 세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응답자가 하는 일에 대해 최대한 많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함이다.



직업관련 설문은 전체 설문 중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문항이고, 그러기에 면접 종류 후에도 보충 전화조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문항이다. 오류가 많다는 것은 조사원이 기입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응답자와 배우자의 직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다. 조사원은 다른 모든 설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직업 관련한 설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응답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설문지 여백에 기록하도록 한다. 아울러서 면접 도중에 산업 및 직업 분류코드를 찾아내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코드 박스에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 직업과 산업에 대한 설문 시 주의 사항

응답자의 정확한 직업과 산업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응답자의 직업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 많게는 12시간이상 까지도 보낸다. 그러므로 직업은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느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스타일, 세계관, 건강상태, 경제적 지위 까지도 결정하곤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집배원 혹은 바텐더라는 말만 들어도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일반화된 직업 타이틀로는 응답자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적절한 직업 코드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최악의 경우 응답자가 말한 것을 조사원이 자의적으로 예단해서 잘못된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라고만 응답할 경우에 이 사무직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데이터 입력, 구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각은 고유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산업 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나는 가구 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 조사원은 응답자가 사업의 어떤 측면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구 제조 공장에 있는지, 수리를 하는지 혹은 가구를 파는 일을 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직업분류표와 산업분류표를 여러 차례 꼼꼼히 읽어봄으로써 산업과 직업의 종류와 각각의 차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 프로빙(probing) 사용하기

면접 도중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질문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응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처럼 설문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사원의 설명을 프로빙이라고 한다. 프로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프로빙 (Probing)

프로빙이란 조사원이 응답자의 답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완벽하고 명확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캐묻는 것을 말한다.

#### 프로빙의 유형

##### ■ 잠시 멈추기

때로는 침묵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단순히 응답을 체크하는 것을 멈추고 뭔가 기대하는 듯 한 눈빛으로 응답자를 쳐다본다.

##### ■ 질문 다시 읽어주기

질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 번 읽어준다. 폐쇄형 질문의 경우, 응답자가 응답 범주에 없는 내용을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사원은 모든 응답범주들을 똑같이 강조하면서 전체 질문을 다시금 읽어준다.

##### ■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등으로 되묻는다.

##### ■ 일반성 강조하기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 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다시 반복한다.

##### ■ 주관성 강조하기

“귀하의 의견에는--” 혹은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근접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다시 반복한다.

##### ■ 질문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기

간혹 응답자의 개인적 의견이 너무 강해서 설문에서 주어진 응답 범주 가운데 응답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자세히 기록해둔다.

## (6) 면접 종료 후 조사원의 임무

이 조사를 1회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수가 있다. 면접결과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조사원이 행해야 할 절차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크게 **설문조사를 완료한 경우와 미완료한 경우**로 나누어 보자.

### ① 설문 완료시

설문을 완료했을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먼저 누락내용 확인 후 누락내용 재질문, 응답자 정보 입수, 인센티브 제공, 면접 직후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과 《조사원 인적 사항》작성, 《표본가구 방문 기록》작성, 연구원보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성공적으로 모두 마친 후 조사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임무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 누락내용 확인 후 누락내용 재질문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을 얻어낸 후, 조사원은 중간에 설문진행 상 편의나 응답자의 거부 혹은 주저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질문하기로 한 것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아야 한다. 만약 누락한 질문이 있어 본인이 다시 응답자를 만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락질문을 잘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과 《조사원 인적 사항》

설문지 맨 뒷 편에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과 《조사원 인적 사항》있는 페이지가 있다. 조사원은 면접을 최종 완료한 후, 반드시 이 두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이 기록은 조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집적되고 활용된다. 이 기록에 대한 작성은 설문지 작성만큼이나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한다. 면접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 면접현장을 떠난 직후(응답자의 아파트나 집을 나온 직후)에 작성하는 것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

※ 아래 질문은 조사원이 면접 직후 응답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켜하지 말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 118. 면접일시

\_\_\_\_ 월 \_\_\_\_ 일 \_\_\_\_ 요일

\_\_\_\_ 오전 \_\_\_\_ 오후 \_\_\_\_ 시 \_\_\_\_ 분부터 \_\_\_\_ 시 \_\_\_\_ 분까지


#### 119. 설문지 기입시

\_\_\_\_ (1) 조사원이 전부 기입

\_\_\_\_ (2) 응답자가 전부 기입

\_\_\_\_ (3) 응답자가 일부 기입

(문항 119호 보아갈 것)

☐

119.1 《응답자 양부 거절서》 응답자가 기입한 문항번호

\_\_\_\_ 번부터 \_\_\_\_ 번까지 \_\_\_\_ 번부터 \_\_\_\_ 번까지

--	--	--	--	--	--	--	--	--	--	--	--	--	--	--	--	--	--	--	--

120. 면접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체크하십시오.

\_\_\_\_ (1) 6세 미만 어린이가 있었다

\_\_\_\_ (2) 아무도 없었음

\_\_\_\_ (3) 배우자가 있었다

\_\_\_\_ (4) 배우자 이외의 성인이 있었다

--	--	--	--	--	--	--	--	--	--

121. 면접하는 동안 응답자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_\_\_\_ (1) 매우 협조적이었다

\_\_\_\_ (2)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다

\_\_\_\_ (3) 약간 협조적이었다

\_\_\_\_ (4)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

☐

122.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는 정도는 어땠습니까?

\_\_\_\_ (1) 잘 이해했다

\_\_\_\_ (2) 그런대로 이해했다

\_\_\_\_ (3) 잘 이해하지 못했다

☐

123. 응답자를 집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려웠습니까?

\_\_\_\_ (1) 매우 어려웠다

\_\_\_\_ (2) 별로 어렵지 않았다

\_\_\_\_ (3) 다소 어려웠다

\_\_\_\_ (4) 전혀 어렵지 않았다

☐

124. 응답자와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려웠습니까?

\_\_\_\_ (1) 매우 어려웠다

\_\_\_\_ (2) 별로 어렵지 않았다

\_\_\_\_ (3) 다소 어려웠다

\_\_\_\_ (4) 전혀 어렵지 않았다

☐

125. 응답자에게 어떤 면접사본품을 제시했으며, 응답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모두 체크하십시오.

1) 제시한 사본품: \_\_\_\_ (1) 상동권

\_\_\_\_ (2) 우산

--	--	--	--	--	--	--	--	--	--

2) 선택한 사본품: \_\_\_\_ (1) 상동권

\_\_\_\_ (2) 우산

\_\_\_\_ (3) 사본품을 받지 않았음

#### 126. 면접 결과

\_\_\_\_ (1) 응답완료

\_\_\_\_ (2) 응답 미완료

☐

#### <조사원 인적사항>

127. 조사원 ID번호: \_\_\_\_\_

--	--	--	--	--	--	--	--	--	--

128. 성 별: \_\_\_\_ (1) 남 \_\_\_\_ (2) 여

☐

129. 나 이: 만 \_\_\_\_\_ 세

--	--	--	--	--	--	--	--	--	--

130. 소 속: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

--	--	--	--	--	--	--	--	--	--

성 명: \_\_\_\_\_ 전 화 번 호: \_\_\_\_\_

## ■ 응답자 정보 입수

면접을 완료한 후 응답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얻어내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도록 해서 자신이 서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응답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 전화번호만이라도 얻어내려고 노력하라. 응답자의 전화번호는 사후에 확인조사 및 보충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것은 조사원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하자.

## ■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는 별도의 소책자로 인쇄되어 조사원에게 지급되게 되는데, 이 기록표에는 《표본가구 방문 기록》이라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 ■ 표본가구 방문 기록

이 서식은 조사원이 조사를 완결할 때까지 표본 가구를 방문할 때마다 매번 작성해야 하는 방문기록표이다. 이 기록표는 조사원이 언제, 몇 시에 가구를 방문했으며, 조사를 완료했는지의 여부, 조사를 완료할 수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원은 이 기록표도 기록 양식에 맞게 (아래 예시 참조)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표본 가구 방문기록(예시)

횟수	방문 일시	완료여부	미완료 이유	
1	7월 1일 금요일 5시 (오전/오후)	미완	방문을 했으나, 아무도 없었음	0 2
2	7월 3일 일요일 7시 (오전/오후)	미완	응답자 또는 가구원이 재방문을 요청함	0 4
3	7월 4일 월요일 11시 (오전/오후)	미완	응답자가 1차 면접거부	0 8
4	7월 7일 목요일 7시 (오전/오후)	완료	완료	
5	월 일 요일 시 (오전/오후)			

## ■ 연구원보에게 결과보고

연구원보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가능한 한 즉시 완성된 설문을 검토받도록 한다.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누락, 잘못 질문 등) 다시 방문하여 재면접하여야 한다.

## ② 설문 미완료 시

### ■ 재방문 약속

응답자나 가구원과 다음번 면접 일정을 약속한다.

《표본가구 방문 기록》 작성: 방문회수에 따라 내용 작성한다. 재방문이나 면접약속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 방문방법을 수정해보도록 한다.

### ■ 그 외, 응답 거부, 접촉 불가 등의 경우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하는 사항

- 응답자가 없을 경우 시간 및 요일 등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방문해 보았는가?
- 응답자가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가구에 이 연구의 소개책자 및 조사원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기록 등을 남기고 왔는가?
- 응답자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가구의 경우, 응답자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이웃집 등에 물어보았는가?
- 외부인 접근이 차단되는 건물의 경우 접근 방법에 대해 의논했는가?

### ■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새롭게 발견되었을 경우는 연구원보에게 연락하고 연구원보는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하여 다음 절차에 대하여 상의하도록 한다.

선정한 주소에 찾아갔는데 1)만18세 이상의 가구원이 없거나 2) 극심한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3)그 가구에 사는 사람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원보나 본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이 가구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경우 조사원은 《조사진행기록표》에 이 가구의 번호와 함께 자세한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한다.

**조사불가 판정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보에게 우선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SRC에서 불가여부를 판단한다.**

### ■ 조사불가로 판정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하여 《조사진행기록표-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 《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은 아래에 예시되어 있는데, 조사원은 설문이 미완료로 종료된 경우 이 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

※ 다음은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응답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대상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응답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즉시, 그리고 최대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완료한 경우, 설문원호에 체크하시고,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_\_\_\_\_ 설문 원호

1. 설문을 완료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응답자를 만날 수 없었음      (문항 1.1로 가시오)      ☐ ② 외국인이 살고 있음  
☐ ③ 응답자의 면접거부      ☐ ④ 빈집이었음(거주하는 사람 無)  
☐ ⑤ 응답자 외 가구원의 면접거부      (문항 1.2로 가시오)      ☐ ⑥ 주거지가 아님(상가 등)  
☐ ⑦ 질병, 장애 등으로 면접불가      ☐ ⑦ 기타 (무엇: \_\_\_\_\_)  
☐ ⑧ 18세 이상의 성인이 거주하지 않음

(응답대상자를 만날 수 없었다면)

1.1 응답대상가구에 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었습니까?

- ☐ ① 가족      ☐ ③ 대상가구 인근 상점      ☐ ⑤ 통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 ② 이웃      ☐ ④ 공인중개사사무소      ☐ ⑥ 기타

(면접거부로 인해 설문을 완료할 수 없었다면)

1.2 면접거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면접거부 이유: \_\_\_\_\_

2. 응답대상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 ① 남자      ☐ ② 여자

3. 응답대상자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정확한 연령을 모를 경우, 보기에서 해당되는 연령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_\_\_\_\_ 세

- ☐ ① 20대(18~19세 포함)      ☐ ③ 40대      ☐ ⑤ 60대      ☐ ⑦ 80대 이상  
☐ ② 30대      ☐ ④ 50대      ☐ ⑥ 70대      ☐ (a) 모르겠다

4. 응답대상자의 혼인상태는?

- ☐ ① 기혼      ☐ ③ 이혼      ☐ ⑤ 미혼      ☐ (a) 모르겠다  
☐ ② 사별      ☐ ④ 별거      ☐ ⑥ 동거

5. 응답대상자의 최종학력은?

- ☐ ① 초등학교졸업 이하      ☐ ③ 고졸      ☐ ⑤ 대학교(4년제) 졸업      ☐ (a) 모르겠다  
☐ ② 중졸      ☐ ④ 전문대(23년제)졸      ☐ ⑥ 대학원 졸업

6. 응답대상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관리/경문직      ☐ ③ 판매서비스직      ☐ ⑤ 무직      ☐ ⑦ 학생  
☐ ② 사무/관리문직      ☐ ④ 생산/기능/노무직      ☐ ⑥ 주부      ☐ (a) 모르겠다

7. 응답대상가구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문항에 O, 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응답자 혼자만 살고 있는 일인가구이다 \_\_\_\_\_      4)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_\_\_\_\_  
 2) 부부만 살고 있다 \_\_\_\_\_      5) 18세 이상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_\_\_\_\_  
 3) 맞벌이 가구이다 \_\_\_\_\_      6) 3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_\_\_\_\_  
 7) 기 타 (구체적으로: \_\_\_\_\_ )

8. 응답대상가구의 거주형태는?

- ☐ ① 단독주택      ☐ ③ 빌라      ☐ ⑤ 원룸      ☐ (7) 기타(무엇: \_\_\_\_\_)  
☐ ② 아파트      ☐ ④ 다세대 주택      ☐ ⑥ 오피스텔      ☐ (a) 모르겠다

8.1 조사원이 생각하는 응답대상가구의 평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대상가구 평수: \_\_\_\_\_ 평

9. 응답대상가구의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하의 하      ☐ ③ 중의 하      ☐ ⑤ 상의 하      ☐ (a) 모르겠다  
☐ ② 하의 상      ☐ ④ 중의 상      ☐ ⑥ 상의 상

## ▣ 연구원보에게 결과보고

재방문 및 조사불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연구원보에게 보고하고 재방문(혹은 재재방문) 여부의 결정 및 방문방법 변화에 관하여 연구원보와 상의하도록 한다.

## 2. KGSS-2008 설문 구성

### 1) 설문 내용 요약

앞 장에서도 설명했듯이 KGSS의 설문은 기본적으로 반복핵심 설문, ISSP 주제모듈 설문, EASS 주제모듈 설문,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되고, 이는 2008년 조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8년 KGSS의 설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KGSS-2008 설문 내용 요약

조사내용		설문내용
반 복 핵 심 조 사	문항번호 1번~56번	
	정치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정당, 선호정당, 정당 평가, 국정운영 평가,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민족통일 문제 등
	경제	경제만족도, 경제전망, 자본주의의 이미지, 대기업의 이미지 평가, 대기업에 대한 정책 평가,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등
	사회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 신문구독 및 TV시청, 인터넷·이메일·휴대전화의 사용 행태 등
ISSP 모 듈	배경변수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 구성과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비동거 가족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수, 가구원 중 취업자 수, 종교, 가계소득,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직업, 산업 등
	문항번호 57번~92번	
ISSP 모 듈	「2008년 종교Ⅲ」	종교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 (가정, 자녀양육, 가치관, 대인 신뢰, 사회 신뢰, 행복도, 등), 종교와 과학 간의 관계, 종교의 사회적·개인적 영향에 대한 의견 (종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정도, 개인에게 평안·위안·사회적 자원을 주는 정도, 등), 종교인에 대한 태도 (종교인의 배타성 정도,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응답자의 수용도,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의견, 등), 자신의 신(神)관, 사후세계·기적·사주·점·부적 등에 대한 믿음, 자신·배우자·부모의 종교, 종교성 및 종교 의례 참여 정도, 종교기관에 대한 평가, 종교 지도자에 대한 평가, 각



		종교 집단에 대한 이미지, 등
EASS 모듈	문항번호 93번~116번	
	「2008년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	국가별 선호 문화, 미신·풍속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친구의 특성, 가치관, 지역정체성, 여가·문화활동, 외래문화 접촉,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제이주, 세계화/국수주의에 대한 태도, 영어 사용 능력, 사회적 연결망 등

## 2) 설문 문항 설명 및 문항별 주의 사항

마지막으로, 설문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문 문항별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조사원은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 설문 진행 및 응답 기입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 (1) 반복핵심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

반복핵심 설문이란 앞서도 설명했듯이 KGSS조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설문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의 변화상을 연도별로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사원은 반복핵심설문의 각 문항에 대해서 유효한 하나의 응답을 얻어내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물론 다른 설문문항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복핵심설문에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응답자가 답하기 곤란해 할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다른 가족원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원은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여,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빠짐없이 응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복핵심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반복핵심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

문항 번호	주의 사항
3	<b>사회 각 기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b> 12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KGSS-2008 자료집」에 있는 《프로빙 지침》을 참고하여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함 (《프로빙 지침》 해당 문항: 교육계/중앙정부부처/지방자치 정부/국회/학계/청와대/시민운동단체)
10	<b>한국의 정치 상황:</b> 국내의 정치 상황을 의미함
11	<b>앞으로 정권을 잡을 능력이 있는 정당:</b>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집권할 능력을 말함. 차기 대선에

	서는 현재와 다른 정당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테지만, 그래도 현재를 중심으로 응답 범주에 나와 있는 정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종용해야 함
11, 17, 17.1	<b>정당 이름 응답 보기에서 (66) 기타 (어느 정당: ):</b> 이 응답범주는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임.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시에는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물어 보고,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하도록 함
15, 16	<b>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b> 두 문항을 연달아 묻고 있음. 응답자가 두 문항을 분명히 구분하도록 주의해야 함
28, 28.1	a) <b>신문:</b> 전통적인 활자 신문이 아닌 신문 형태 (온라인 신문, 등)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응답자가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나'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잘 대답해줘야 함; b) <b>(77) 기타 (구체적으로: ):</b> ①~⑥번까지의 응답범주가 아닌 모든 대답은 (77) 기타 에 응답자의 응답 그대로 기입함. 예를 들면, 응답자가 '만화/ 오늘의 운세/ 날씨/ 사설·칼럼/ 부음/ 인사동정 등 보기에 없는 대답을 하면 조사원이 임의로 판단해서 응답범주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항목에 쓰면 됨. 기타의 항목을 범주화하는 것은 나중에 연구소에서 할 것임.
29, 29.1	'TV': 인터넷, DMB 등으로 보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위의 28번, 28.1번 설문 시 주의사항 내용과 유사.
43~46	<b>가족관련 설문:</b>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b>43+44+45 응답의 합계는 46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 수와 일치해야 함</b>
43	<b>동거 가족:</b>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고 응답자 자신도 동거 가족 수에 포함됨. 동거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다음의 각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함 a) 평소 함께 사는 데 짧은 시간동안 (4~5개월 이내) 출장, 연수, 입원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도 포함됨; b)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 (군복무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인 경우는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등)은 포함되지 않음 c) 평소 함께 살지 않는데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예: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은 포함되지 않음 d) 주말 부부의 경우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e)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는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고, '가족'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45번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키도록 함
44	<b>별거 가족:</b> 여기서 '별거'란 혼인상태로서의 별거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을 말함 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및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손녀는 별거 가족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정보는 46번 가구표에도 기입해서는 안됨

	<p>b) 역으로 응답자 자신이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등의 원가족은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음. 이 경우도 46번 가구표에 기입해서는 안 됨</p> <p>c)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림</p> <p>d)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리고,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별거 가족에 포함됨</p> <p>e)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림.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에는 별거 가족에 포함됨</p>
45	<p><b>가족 외 동거자:</b>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친구, 직장 동료, 하숙생, 가사 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함; 친척(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가족'으로 인식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해당 항목에 맞게 포함시키도록 함</p>
46	<p><b>가구표:</b> 앞의 43, 44, 45번 문항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자를 설득하면서 응답을 모두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이 질문들의 응답 범주는 '4) 혼인상태' 설문을 제외하고는 읽어 주는 보기가 아님을 명심하도록 함</p> <p><b>1) 응답자와의 관계:</b></p> <p>a) 가구원 번호 1번은 응답자임. 1번에 다른 가구원을 적지 않도록 주의함</p> <p>b)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예를 들어 응답자가 기혼 여성이고, 시동생이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시동생은 '삼촌'이 아니라 '남편의 형' 혹은 '남편의 동생' 등으로, 부모일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인지 '배우자의 부모'인지 등으로 정확하게 써 줘야 함</p> <p>c)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가 몇 개 자녀인지를 물어 보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어야 함</p> <p>d) 보기의 "(26) 돌봐주는 사람"은 응답자가 돌봐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원 중에 누군가를 돌봐 주기 위해서 현재 그 가구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함</p> <p>e) (77) 기타 (누구: )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조사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p> <p><b>3) 나이:</b> 조사 시점 당시 만 나이를 말함; 응답자가 가구원의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띠를 물을 때는 대략의 연령대를 물어야 함) 등을 물어 보던가 해서 무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p> <p><b>4) 혼인상태:</b> 응답자가 대답을 꺼릴 수도 있는 질문임. 특히, 별거나 이혼의 경우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때는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혼인상태 응답 범주는 읽어 주는 보기임.</p> <p><b>5) 동거여부:</b>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p>

	<p>면 (44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p> <p>6) 비동거 사유: (04) 응답자 취학 (05) 응답자 취업 보기는 <b>응답자 자신이 취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b> 해당하며, 그런 경우에는 (01) 취학 (02) 취업으로 체크해서는 안 됨; (01)~(05) 의 응답 범주에 해당 되지 않는 비동거 사유는 (77) 기타 (무엇)에 자세히 적도록 함</p> <p>7) 취업 여부: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여기에는 임시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소규모 농사 (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p> <p>8) 미취업 사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넘버를 기입하도록 함. 강조하건대, 보기 넘버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p> <table border="1"> <tr> <td>(01) 학령미달</td><td>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td></tr> <tr> <td>(02) 재학</td><td>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 (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td></tr> <tr> <td>(05) 질병</td><td>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td></tr> <tr> <td>(06) 심신장애</td><td>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td></tr> <tr> <td>(09) 은퇴</td><td>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직장의 구조조정, 건강·본인이 그 일을 더 하고 싶지 않아서·다른 일 계획 등의 개인 사정, 혹은 집안 사정, 직장사정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경우를 말함</td></tr> <tr> <td>(10) 정년퇴직</td><td>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td></tr> <tr> <td>(11) 취업준비</td><td>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td></tr> <tr> <td>(12) 공부중</td><td>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 (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 [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td></tr> </table>	(0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0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 (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0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0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09) 은퇴	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직장의 구조조정, 건강·본인이 그 일을 더 하고 싶지 않아서·다른 일 계획 등의 개인 사정, 혹은 집안 사정, 직장사정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경우를 말함	(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 (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 [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0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0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 (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0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0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09) 은퇴	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직장의 구조조정, 건강·본인이 그 일을 더 하고 싶지 않아서·다른 일 계획 등의 개인 사정, 혹은 집안 사정, 직장사정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경우를 말함																
(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 (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 [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47	<p><b>가구주:</b>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p>																
48~51	<p><b>응답자,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 설문</b></p> <p>a)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 (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조사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p> <p>b)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p>																
52	<p><b>일 관련 문항:</b>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사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p>																

	<p>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p> <p><b>52. '수입이 있는 일':</b> a)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b)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되고 52.19 문항에서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소득 내용을 기입하도록 함. 그러나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함</p> <p><b>52.1. '고용':</b>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를 말함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하나 만약에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함)</p> <p><b>52. 2, 42.3, 52.5, 52.6, 52.8:</b> 응답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의 《프로빙 지침》을 참고하여 설명해 줄 것</p> <p><b>52.12, 52.13, 52.19 소득 관련 질문:</b>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p> <p>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시할 것 (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조사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p> <p>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종용해 봄</p>
55	<p><b>산업 및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 관련 질문:</b>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을 알아보는 질문임.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b>조사원은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들어 있는 《산업분류표》와 《직업분류표》를 사전에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에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b></p> <p>a) 55번 설문에서 설문 방법의 제 1 원칙은 "가능하면 자세히 물어 본다"임</p> <p><b>55.1) 산업/직종:</b>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우선은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산업분류표》를 보면, 산업/직종명이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p> <p><b>55.2) 직위 및 업무내용:</b>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직업분류표》를 보면, 직업종류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 그 이유는 이런 직위와 업무내용에 따라서 직업코드가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임. 몇몇 예를 더 살펴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장에서 양품점 운영:</b> 단순히 옷을 가져다가 판매하는가? 아니면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는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상점판매원'인지 '상업 디자이너'인지 달리</li> </ul>

	<p>구분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농사를 짓는다</u>: 어떤 종류의 작물(예: 쌀, 채소, 과수)인가? 출하용인지, 아니면 자급용인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출하용 채소 재배자'인지 '과수작물 재배자'인지 '자급 농업 종사자'인지 달리 구분됨</li> <li>• <u>사무직이다</u>: 어떤 종류의 사무인지 구체적으로: 비서인지, 경리를 맡는지, 대금을 수납하는 일인지, 고객상담 일인지, 등 자세히 알아 낼 것.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비서', '회계 사무원', '대금수납 관련 사무원', '고객안내 사무원' 등으로 달리 구분됨</li> <li>• <u>생산직이다</u>: 무엇을 하는 작업인지 구체적으로: 쇠파이프를 용접하는 일인가, 쇠파이프 원료를 가열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일인가, 다 만들어진 제품을 포장하는 일인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금속 용해원', '금속가열처리장치 조작용', '수동포장 노동자' 등으로 달리 구분됨</li> <li>• <u>이동통신 회사에서 일한다</u>: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관리자라면 어떤 부서 (연구개발, 인사, 광고, 생산, 등)의 무슨 직급(이사, 부장, 과장, 대리, 등)의 관리자인지, 혹은 비서직인지, 생산직인지, 아니면 가구를 방문해서 통신선을 설치하는 기사인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달리 구분됨</li> <li>• <u>식당에서 일한다</u>: 사장님인지,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지, 설거지 일만 하는지, 배달일만 하는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달리 구분됨</li> </ul>
54, 55	<b>배우자의 일 관련 문항</b> : 응답자의 일 관련 문항과 동일한 내용. 위의 내용 참조
56	<p><b>가구소득</b>: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p> <p>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 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p> <p>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종용해 봄</p> <p>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p>

## (2) ISSP 「종교」 모듈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

종교관련 설문은 내용이 생소할 수 있고, 길고 반복적인 질문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설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어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에 다소 어색할 수 있다. 조사원은 설문지를 사전에 꼼꼼히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현지조사에서 막힘이 없이 유연하게 설문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어떤 응답자 (예: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나 종교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 등)는 종교관련 설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조사원은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응답자의 말을 경청하되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각각의 설문에 대해 유효응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ISSP 「종교」 모듈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SSP 「종교」 모듈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

문항 번호	주의 사항
57	<p><b>부부 중 가족관련 일 결정은 누가 하나:</b>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p> <p>1) 자녀 훈육과 교육: 자녀가 없다면 비해당; 자녀가 모두 장성하거나 결혼 후 분가해서 부모가 자녀 훈육 및 교육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옛날에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 물어 볼 것</p> <p>2)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지원: 응답자가 고אי이거나 부모님이 응답자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비해당; 부모님이 응답자가 결혼한 후에 돌아가셨다면 생존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물어 볼 것</p>
63	<p><b>사회기관 신뢰도:</b> 내용이 3번 문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앞에서 물어 놓고 왜 또 물어 보 나'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음.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a) 3번 문항에서는 '사회기관 지도자 신뢰도'이고 63번은 '사회기관 신뢰도' 문항이라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 할 것; b) '같이 보이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종용할 것</p>
64	<p><b>거주지 이전 경험</b></p> <p>② 나는 한 나라 내 여러 지역(시, 군, 읍, 광역시의 구)에서 살았다: 예)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등 서울시에서 다른 구로 이사를 다닌 경우는 ② 에 해당됨</p>
75 76 77 78	<p><b>아버지의 종교, 어머니의 종교, 응답자의 어린 시절 종교, 배우자의 종교:</b> 같은 유형의 질문이 네 번 연달아 나옴. 그러나 각각은 서로 다른 대상의 종교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이므로 응답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분명히 구분하면서 설문할 것</p> <p>75 &amp; 76 아버지의 종교, 어머니의 종교: 부모의 현재 종교가 아니라 응답자가 어렸을 때 부모의 종교를 묻고 있음</p> <p>77. "혹시 귀하가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면, 그것은 어떤 종교입니까?": 이것은 응답자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주로 믿는 종교를 말하고, 집안이 종교적인 집안이었다면 그 종교가 무엇이었는지를 폭넓게 묻고 있음.</p> <p>b) 응답 범주 (77) 기타 (무엇: ): 개방형 범주이므로 내용을 자세히 써야 함. 조사원은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들어 있는 《종교분류표》를 사전에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에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함</p>
75.1 76.1 77.1 78.1	<p><b>종교의 구체적인 교파 혹은 종파:</b> 교파나 종파는 종교 조직 구분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므로 이 질문을 부가로 하는 것임. 응답자가 귀찮아하더라도 잘 설득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함</p> <p>a)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들어 있는 《종교분류표》를 사전에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에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함</p> <p>b) 응답자가 모른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무슨 절/교회/사원인지 그 이름을 알 수 있는지 라고 물어보고 응답을 적도록 함 (예: xx시, xx구, xx동, xx도, xx군, xx읍, xx면에 있는 xx교회 혹은 xx 절)</p>
79, 80, 81	<p><b>과거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자의 종교의례 참여 정도:</b></p> <p>a) 응답자가 어렸을 때 부모 및 자신의 의 종교의식 참여 정도를 묻고 있음</p> <p>b) 종교의식: 교회, 성당, 절 등에서 하는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정기적인 의례를 말함 (예: 일요일마다 있는 예배, 미사, 법회; 아침마다 있는 새벽 기도 예배, 등)</p>

83	<b>현재 응답자의 종교 모임이나 활동 참여 정도:</b> 교회, 성당, 절 등에서 하는 정기적인 예배나 법회 외에 같은 교회, 성당, 절 등에 있는 각 종 모임이나 활동 참여 정도를 묻고 있음: 예) 경전 공부 모임, 선교회 등 특정 부서 활동, 봉사 활동 (아동부, 학생부 교사, 성가대 활동), 등
84	<b>집에 성물을 모셔 놓고 지내는지의 여부:</b> 응답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하는 행위를 묻고 있음; a) 응답자 자신과는 무관하게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자신의 종교적 이유로 성물을 모셔놓은 것이라면 "② 아니오"에 해당함; b) 응답자가 하더라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단지 장식용이나 취미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② 아니오"에 해당함
85	<b>종교 관련 신성한 장소 방문 정도:</b> a)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 절, 사원, 성당, 성지, 수도원, 기도원, 등을 방문하는 것을 말함; b) 방문 목적이 정기적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던가, 예배·참배·제사·수도·명상·기도·발원 등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함

### (3) EASS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 모듈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 관련 설문은 종교관련 설문과 마찬가지로 길고 반복적인 질문유형이 더러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설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어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에 다소 어색할 수 있다. 조사원은 설문지를 사전에 꼼꼼히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현지조사에서 막힘이 없이 유연하게 설문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8 EASS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 모듈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EASS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 모듈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

문항 번호	주의 사항
93	<b>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영화,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하는 정도:</b> '현재' 시청하는 정도임; 응답자가 옛날 (젊었을 때는, 몇 년 전에는, 결혼 전에는, 등등으로 대답을 하면, '지금은 안 보시나요?' 라고 물으면서 최근 상황을 물어 볼 것
94	<b>자녀 이름 작명:</b>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명을 하기 위해 작명 관련 책을 참고하는 것도 포함됨
95	결혼식, 이삿날, 장례식 등 특별한 날을 정할 때 길일, 흉일 고려하는 정도: 이제까지 그런 날을 정할 일이 없었던 사람(예: 20대 등의 젊은 층)이라면, (8) 선택할 수 없음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응답자가 그런 것을 고려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볼 것
96	<b>친구를 사귄다 고려하는 것:</b>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의 덕목 내지는 성향을 묻고 있음
102	<b>각 음악장르 선호도:</b> 각 음악장르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도를 묻고 있음. 특히 서양고전음악, 대중음악, 대중음악은 응답자가 혼동할 수도 있으니 각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줄 것 (1) 서양고전음악: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음악으로 클래식이라고도 함, 가곡, 소나타, 아리아, 교향곡, 협주곡 등을 포함. (한국)가곡은 서양고전음악에 포함됨 (4) 대중음악: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음악양식의 총칭, 여기에서는 록음악과 재즈/블루스를 제외한 모든 대중가요를 포함



	(5) 한국전통음악: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판소리, 창 등의 국악과 한국민요 등을 포함
103.1	<b>응답자 주변에서 해외에서 성 관련 유흥 경험이 있는 사람:</b>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 (5) 기타 (구체적으로: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지역명도 좋으나 가능하면 응답자가 국가명을 얘기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함
104	외국 경험: 응답자가 설문지에 나와 있는 6개의 지역/국가 외의 다른 지명을 응답하면, '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곳들은 방문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라고 하면서 확인 질문을 시도한다. 응답자가 특정 국가명을 이야기하면 일단 그 국가명을 설문지 여백에 기록한다
112~115	<b>응답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설문:</b> 물어 보는 대상이 각각 다른 설문들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질문할 것; 동일한 설문 내용이 반복되므로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똑같은 대답을 무성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해서 응답자를 잘 설득해야 함 112번과 114번의 경우, 사업상 또는 업무상 이유 때문에 접촉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함. 하지만, 응답자가 일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도 개인적 친분 때문에 새해인사를 하거나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라면 포함시켜야 함



## 부 록



## 1. 현지조사 조직 및 연락망

번호	지역	소속	담당교수	연구원보	연락처	담당 SRC교수
1	서울/경기	국민대	이장영	김대희	010-6418-4468	남은영
2	서울/경기	백석대	유성렬	남혜미	010-6680-8828	최유정
3	서울/경기	서강대	이재혁	박하균	010-3929-8411	고지영
4	서울/경기	성균관대	김석호	도연주	010-3919-6335	김석호
5	서울/경기	서울시립대	이윤석	김안나	010-5749-5045	고지영
6	서울/경기	이화여대	최셋별	권혜원	010-4281-0840	최유정
7	서울/경기	인천대	이윤희	황동건	011-9196-3919	고지영
8	강원/경기	한림대	엄한진	최승훈	010-9155-8165	박병진
9	강원/경기	강원대	정성호	이혜미	010-3592-9330	박병진
10	충북	청주대	이정환	강신찬	010-3311-7156	남은영
11	충남	충남대	박재묵	손정혁	016-9233-1504	남은영
12	충남	남서울대	이주열	정지은	010-8841-6173	최유정
13	대구/경북	계명대	임영규	김동기	010-3752-5116	김석호
14	대구/경북	경북대	조주은	박정현	016-560-9564	김석호
15	부산/울산/경남	부산대	김희재	이진후	011-847-2193	김석호
16	부산/울산/경남	동아대	최순	최정욱	011-593-3005	김석호
17	부산/울산/경남	울산대	전성표	서현우	010-4501-4329	김석호
18	부산/울산/경남	경상대	최태룡	최옥산	010-6250-6555	김석호
19	전북	전북대	김영정	이계승	010-8990-7401	박병진
20	광주/전남	순천대	장상수	서동기	011-9613-6968	박병진

## 2. SRC 조직 및 연락망

구분	성명	연구실	휴대폰	e-mail
소장/공동	양종희	02-760-0409	011-9883-0227	jhyang@skku.edu
연구책임 공동	김상옥	02-760-0412	010-3014-0412	swkim@skku.edu
SRC 연구교수	박병진	02-760-0709	011-794-5212	bjpark111@hanmail.net
	고지영		010-6406-4460	ckohmail@gmail.com
	이경미		011-641-0822	lcy822@hanmail.net
	남은영		010-3366-8248	neylee@hanmail.net
	김석호		010-2905-9882	seokhok@skku.edu
	최유정		011-346-3274	cyj1003@hotmail.com
SRC 연구조교	전은주	02-760-1270	010-6327-7064	self0907@hanmail.net
	반미희		011-9830-6726	banmihee@hanmail.net
	김태형		010-4735-1521	982211@hanmail.net
	박성일		010-6239-2059	parks-si@hanmail.net
	김혁우		011-9894-1863	miheaven@empal.com

## 3 KGSS-2008 조사 일정

일 정	내 용
6월 27, 28일 (금, 토)	면접조사원 오리엔테이션 장소는 조치원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6월 29일 ~ 7월 19일, 3주	▶ KGSS-2008 본 조사
7월 20일 ~ 7월 31일, 2주	▶ KGSS-2008 보충 조사
8월 1일 ~ 31일	▶ KGSS-2008 확인 조사 - 검표(check) / Validations / Coding(手작업) 병행
9월 1일 ~ 30일	▶ KGSS-2008 Editing & Punching
9월 20일 ~ 21일(토, 일)	▶ 3차 Workshop(평가워크샵) - 주제: KGSS-2008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10월 ~ 12월	▶ KGSS-2008 Data Cleanings

## 4. 면접 기록표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예시)

표본 가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9 푸른마을아파트 108-1101

가구 번호	
0	2

\* 표본 가구에서 다음 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에 ○ 표 하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가구원 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1	홍길동	본인	5 월 17 일	6	홍연우	딸	8 월 30 일
2	최영희	처	9 월 19 일	7			월 일
3	홍철수	아들	4 월 5 일	8			월 일
4	홍철우	아들	9 월 8 일	9			월 일
5	홍연정	딸	6 월 7 일	10			월 일

표본 가구 방문기록(예시)

횟수	방문 일시	완료여부	미완료 이유	
1	7 월 1 일 금요일 5 시 (오전/오후)	미완	방문을 했으나, 아무도 없었음	
2	7 월 3 일 일요일 7시 (오전/오후)	미완	응답자 또는 가구원이 재방문을 요청함	
3	7 월 4 일 월요일 11시 (오전/오후)	미완	1차 면접거부	
4	7 월 7 일 목요일 7 시 (오전/오후)	완료	완료	
5	월 일 요일 시 (오전/오후)			
6	월 일 요일 시 (오전/오후)			
7	월 일 요일 시 (오전/오후)			

## 5. 미완료 설문 기록사항

※ 다음은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응답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대상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응답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즉시, 그리고 최대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을 완료한 경우, 성문완료에 체크하시고,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_\_\_\_\_ 설문 완료

1. 설문을 완료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응답자를 만날 수 없었음                 | <input type="checkbox"/> ⑥ 외국인이 살고 있음        |
| <input type="checkbox"/> ② 응답자의 면접거부                     | <input type="checkbox"/> ⑦ 빈집이었음(거주하는 사람 無)  |
| <input type="checkbox"/> ③ 응답자 외 가구원의 면접거부 (문항 1.1로 가시오) | <input type="checkbox"/> ⑧ 주거지가 아님(상가 등)     |
| <input type="checkbox"/> ④ 질병, 장애 등으로 면접불가               | <input type="checkbox"/> (77) 기타 (무엇: _____) |
| <input type="checkbox"/> ⑤ 18세 이상의 성인이 거주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88) 모르겠다           |

(면접거부로 인해 성문을 완료할 수 없었다면)

1.1 면접거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면접거부 이유: \_\_\_\_\_

2. 응답대상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 ① 남자 ☐ ② 여자

3. 응답대상자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정확한 연령을 모를 경우, 보기에서 해당되는 연령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_\_\_\_\_ 세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20대(18~19세 포함) | <input type="checkbox"/> ③ 40대 | <input type="checkbox"/> ⑤ 60대 | <input type="checkbox"/> ⑦ 80대 이상 |
| <input type="checkbox"/> ② 30대            | <input type="checkbox"/> ④ 50대 | <input type="checkbox"/> ⑥ 70대 | <input type="checkbox"/> (8) 모르겠다 |

4. 응답대상자의 혼인상태는?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기혼 | <input type="checkbox"/> ③ 이혼 | <input type="checkbox"/> ⑤ 미혼 | <input type="checkbox"/> (8) 모르겠다 |
| <input type="checkbox"/> ② 사별 | <input type="checkbox"/> ④ 별거 | <input type="checkbox"/> ⑥ 동거 |                                   |

5. 응답대상자의 최종학력은?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초등학교졸업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③ 고졸         |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교(4년제) 졸업 | <input type="checkbox"/> (8) 모르겠다 |
| <input type="checkbox"/> ② 중졸        |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대(23년제)졸 |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원 졸업      |                                   |

6. 응답대상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관리/전문직  | <input type="checkbox"/> ③ 판매서비스직    | <input type="checkbox"/> ⑤ 무직 | <input type="checkbox"/> ⑦ 학생     |
| <input type="checkbox"/> ② 사무/준전문직 | <input type="checkbox"/> ④ 생산/기능/노무직 | <input type="checkbox"/> ⑥ 주부 | <input type="checkbox"/> (8) 모르겠다 |

7. 응답대상가구의 가족형태는 어떻습니까? 아래 문항에 O, 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응답자 혼자만 살고 있는 일인가구이다 | <input type="checkbox"/> 5) 18세 이상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 <input type="checkbox"/> |
| 2) 부부만 살고 있다            | <input type="checkbox"/> 6) 3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 <input type="checkbox"/> |
| 3) 맞벌이 가구이다             | <input type="checkbox"/>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input type="checkbox"/> |
| 4)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 <input type="checkbox"/>                        |                          |

8. 응답대상가구의 거주형태는?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주택 | <input type="checkbox"/> ③ 빌라     | <input type="checkbox"/> ⑤ 원룸   | <input type="checkbox"/> (7) 기타(무엇: _____) |
| <input type="checkbox"/> ② 아파트  | <input type="checkbox"/> ④ 다세대 주택 | <input type="checkbox"/> ⑥ 오피스텔 | <input type="checkbox"/> (8) 모르겠다          |

8.1 조사원이 생각하는 응답대상가구의 평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평